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우리 집 설계도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의 할아버지

큰 할머니 유훈(遺訓) 따라
대대로 살아 온 집

출입구는 남쪽으로
안쪽에는 방 2칸
중앙에는 비워둬서 하늘빛을 들이고
성스럽게 기도하며 따뜻하게 난로 피고

하늘 기운 가득하고 자비가 넘치는 집
후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우리 집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집의 설계도를 그린 것 같다. 구조는 간단하다. 출입구가 표시되어 있고, 집의 중앙, 그리고 뒤쪽에 안방이 2개 그려져 있다. 집과 함께 그 옆에 산양과 큰 고리 지팡이를 2개씩 그렸다. 숫자로는 두 개씩이지만, 숫자를 넘어서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다.

집의 내부를 그려놓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은데, 왜? 그렸을까? 바위에 새겨 놓을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꼭 지켜야 하는 원칙 같은 것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 여름이나 겨울에 출입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 난로를 놓는 위치, 어른과 아랫사람이 서로 배려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 각각의 움직이는 동선(動線)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원칙을 하찮게 여겨 지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보면, 자칫 집이 복잡해지고 거기에 따른 삶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 작은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도를 바위에 새겨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의 원칙도 단순하게 해야 지키기도 쉽고, 오래 지켜진다. 그래야 삶이 단순해지고 번뇌도 적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⑪ 보성 스님

유묵으로 주신 '초심'의 가르침
〈初心〉



1967년 11월 18일 부산 대각사 청년회 수련대회 때 스님을 처음 뵈었다. 그때 스님이 우리 담당 스님이었다. 스님은 우리에게 절에서 지켜야 할 예법과 2박 3일 동안의 수련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저녁예불과 법문 후 스님은 잣을 가지고 우리가 묵고 있던 홍제암으로 오셨다. 스님께서는 잣을 하나하나 일일이 까주셨고, 우리는 서로 잣을 주워 먹겠다고 용을 썼다. 잣 하나에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었다. 스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밤 9시에는 무조건 취침에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런데 스님께서 오히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잊으시고 계속 잣을 까주시다가 11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크게 놀라며 부리나케 처소로 돌아가셨다. 스님이 처소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오래도록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 첫날부터 청규를 어기고 말았다. 이후로 스님을 종종 뵈었는데 스님께서는 인자하신 얼굴로 반기시며 그때의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초심 가야산인 보성(初心 伽倻山人 菩成)"
1967. 11. 18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은 없다. 어느 날 스님께서 유묵 한 점을 주셨는데 늘 가르침으로 품고 산다. '초심'이라는 두 글자가 바쁘고 부산한 일상을 정리해 줄 때가 많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삶에 이끌려 살다보면 경전에서 배우고 법당에서 들었던 법문들이 무색하게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절에 가는 일도 그저 가야하니까 가고, 법회 갔으니 법문 들어야지 하면서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으니 마음에 쌓인 것은 하나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스님의 유묵 '초심'이 떠오른다. 스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글 중에서 '초심'이라는 두 글자를 주셨을까. 두 글자가 본래 품고 있는 뜻도 귀한 것이지만 스님의 의중도 또한 귀한 것이라 생각된다. 무언가 하나를 주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그런 걸 주시고 싶었던 것 같다. '초심'이라고 읽고, '처음 먹었던 마음'이라고 마음으로 그 뜻을 떠올리면 복잡하고 산란했던 마음이 '리셋'되는 느낌이다. 그럴 때면 '초심'이라는 두 글자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1987. 여름에 보성 스님(왼쪽)과 함께 찍은 사진.

"무릇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처음으로 마음먹은 이(초발심자)는 모름지기 나쁜 벗(계율을 지키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이)을 멀리하여야 한다. 반면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가 밝은 벗을 가까이 해야 한다."

출가자가 출가하여 처음으로 보는 〈초발심자경문〉이다. 스님들을 위한 경문이지만 가슴에 와 닿는 문장들이 많다.

"병든 이가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보아 주고,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웃어른을 만나거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켜서야 한다.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뚱이 말라 시드는 것을 다스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 줄 잘 알아야 하며,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호념하되 무주상 보시의 청정함을 생각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산문에서 지녀야 할 문장들이지만 산문 밖에 사는 나와 같은 불자들에게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있어 읽을 때마다 삶의 좌표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다.

절에 가고, 스님들 뵙고, 경전 보고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공부 아닌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의중이 무엇이었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모든 것이 공부 아닌 게 없다.

